

실속 재테크

신개념 '변신보험' 속속 출시

# 종신보험→저축보험 전환 가능

가입자의 요구에 맞춰 계약 전환이 자유로운 신개념 보험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180도 탈바꿈한다는 의미에서 트랜스포머형 상품으로 불리는 이들 '변신 보험'은 가입자의 상황이 바뀌면 종신보험→저축보험, 종신보험→연금보험 등의 방식으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계약 전환을 하게 되면 설계사 수당 등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보험의 무한변신=대한생명이 10일 업계 최초로 선보인 '명품변역유니버설종신보험'은 부모가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가 7년이 지나면 자녀 명의의 저축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단순 사망보장만 제공하던 종신보험이 아파거나(CI보험) 살아서도(연금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가 이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이 보험은 건강하게 은퇴를 맞이한 아버지의 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으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 종류와 보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상품이다.

단 자녀 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보험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하며, 자녀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을 기준으로 할 때 35세 남자의 월납 보험료는 18만4천원이다.

지난달에 새로 나온 교보생명의 '교보 변역유니버설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역보험으로 가입하는 형태이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시중금리에 연동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일반 종신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단 보험 전환은 가입 후 7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며, 한 번 형태를 바꾸면 다시 옛 보험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 변신보험 상품 비교

상품명	전환조건	특징
대한생명 명품변역유니버설종신보험	가입 후 7년 자녀나이 15세 이상	자녀명의로 저축보험으로 전환 가능
교보생명 교보변역유니버설보험	가입 후 7년	시중금리와 연동해 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가능. 재전환은 불가
신한생명 아이사랑보험명작	가입자가 30세 되면 전환	전환후 암 등 성인병 집중 보장
알리안츠생명 파워텍스처브연금보험	1년 단위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지수·시중금리 선택 자유

## 라이프사이클 맞춘 트랜스포머형 인기 은퇴한 부모보험 자녀에게 물려줄수도

신한생명의 '아이사랑보험 명작'은 가입자가 서른 살이 되면 어린이보험에서 어른보험으로 자동 변신한다. 30세 이전에는 유과나 납치사고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다가 30세 이후에는 암·상해·건강 등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집중 보장받을 수 있다.

대다수 보험 상품들은 처음 가입할 때의 수익률 적용 기준이 고정되는 게 보통이다. 알리안츠생명의 '파워텍스처브연금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시장 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주가지수와 시중금리 중에서 자유롭게 바꿔 탈 수 있다.

◇가입전 전환조건 확인을=하지만 이 같은 '변신 보험'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새 보험으로 전환될 때 가입자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전액 그대로 옮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 해지 시점의 해약 환급금이 새 보험으로 갈아입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가입자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전환되는 금액이 적어 손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긴 보험을 바꿔 타야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실적배당 상품인 변역보험이 많은 만큼 펀드처럼 가입후에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과 운영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손우철 TNV어드바이저 AD센터장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보험 상품도 여기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점은 좋지만 전환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이성태 韓銀총재, 4분기 금리 인상 시사

## 기준금리 6개월째 2% 동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3분기 몇 달간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히 4분기중 금리인상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경기가 앞으로 계속 개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지도록 당분간 금융안화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이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면서 "경제지표는 2분기의 추정치보다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경제성장 추진력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문에서 2분기부터 회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경기는 하반기에도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3분기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4분기중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2분기의 경기개선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돼서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면서 "국내 고용사정도 지표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왔으나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올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연합뉴스



송기진 광주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이병재 우리파이낸셜 대표가 11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업무 제휴를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光銀 아파트 담보 추가대출여부 확인 서비스

### '우리모두홈론' 업무 제휴

광주은행은 11일 광주은행 본점 16층에서 우리파이낸셜과 '우리모두홈론' 업무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제휴에 따라 광주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등 '우리모두홈론'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파이낸셜이 판매 중인 '우리모두홈론'

은'은 기존에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시세의 80% 안의 범위에서 추가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현재 광주은행 등 제1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돼 시세의 60%까지 밖에 대출이 안되지만 우리모두홈론을 이용하면 최대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카드사 리볼빙 금리 맘대로 인상 못한다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 금액을 균등 분할 납부하는 할부 방식과 달리 카드 회원이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 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고금리 이용금액이 먼저 결제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에는 리볼빙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다만, 장기 연체자(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나 상습 연체자(최근 1년간 3회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평가해 인상할 수 있다.

현행 약관에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나 조달금리 변동 등을 들어 리볼빙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카드사는 앞으로 리볼빙 약정서와 카드 가입 신청서를 분리해 리볼빙 약정서에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배우 할 못합니다. 2. 전화 못합니다. 3. 친구 만나 못합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대전) 227-9940 | 순천점 (061) 752-9940  
 부지점 (대전) 227-9940 | 목포점 (061) 262-9200  
 순창점 (061) 227-9970 | 익산점 (063) 851-2422

두번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프리드

인대중합상조 | 가입문의 1566-4499